

2023-03-20 (2023-10호)

03월 20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은행 위기 우려 속 열리는 FOMC 회의... 기승전 '불확실성'

서울, 3월20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은행권 유동성 우려 확산 여부를 주시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 정책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성을 대거 높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90-1,350원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파산에 이어 크레디트스위스(CS) 유동성 위기까지 불거지며 국내외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장세다.

각국 금융 당국의 발 빠른 유동성 투입 조치에 은행권 시스템 위기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게 점쳐지고 있지만, 시장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짙게 깔리면서 시장 심리는 취약해져 있다.

하루가 멀다고 손바닥 뒤집듯 국제 금융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는 가운데 특히 이번 주는 연준 정책회의가 예정돼 있어 국내외 시장은 더욱 심하게 변동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SVB와 CS 사태 이후 미국 금리 선물 시장은 3월 연준의 25bp 금리 인상 전망에 무게를 실는 한편 6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함께 반영하고 있다.

대부분 해외 기관은 연준의 최종금리를 5.25% 또는 5.5%로 제시하는 등 연준 정책 경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최근 은행권 유동성 우려를 감안한 연준의 입장과 향후 정책 스탠스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VB 사태 파장에 원화는 하루가 다르게 정신 없이 오르내리지만, 쏠림 현상은 제한되고 있다. 지난 주 초 불안한 흐름을 보였던 단기 외화자금 시장도 일단 진정세를 되찾았다.

역내외 수급이 여전히 비디시하지만, 환율 상승 쏠림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진 않고 있다.

하지만, 대외 불확실성 전개 양상 따라 원화가 상대적으로 보폭을 키우는 현상이 틈틈이 포착되고 있어, 금주 시장 여건 따라 원화의 변동성이 유독 확대될 리스크는 얼마든지 있다.

오는 21일에는 이달 20일자 수출입 잠정치와 무역수지가 발표된다. 타이트한 외환 수급을 둘러싼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무역수지 적자 추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17일 금융기관 지급준비율을 25bp 전격 인하한 중국인민은행은 20일 대출우대금리를 발표한다.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3월20일(월)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09:30)

3월21일(화)

- ⊙ 관세청: 3.1~20일 수출입 현황
- ⊙ 한국은행: 2023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 (06:00)
- ⊙ 금융감독원: 2022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치) (12:00)
- ⊙ 금융감독원: 2022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잠정] (12:00)

3월22일(수)

- ⊙ 기획재정부: 부총리·1차관·2차관 기획재정부위원회 전체회의 (10:00)
- ⊙ 한국은행: 지역경기상황지수의 개발 및 활용(BOK이슈노트 2023-9) (12:00)
- ⊙ 한국은행: 2023년 2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 (12:00)
- ⊙ 금융감독원: '22.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12:00)
- ⊙ 통계청: 2023년 1월 인구동향 및 2월 국내인구이동 (12:00)

3월23일(목)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비통방, 09:30)
- ⊙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2023년 3월) (11:00)
- ⊙ 금융감독원: 2022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 (12:00)
- ⊙ 통계청: 2022 한국의 사회지표 (12:00)
- ⊙ KDI: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안내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제1차 한-인니 고위급 투자대화 (15:30)

3월24일(금)

- ⊙ 기획재정부: 1차관 신성장전략 전담팀(TF) 4차 회의 (08:00)
- ⊙ 기획재정부: 1차관 한-인니 경제협력포럼 (10:00)
- ⊙ 기획재정부: '22.4사분기 및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11:00)
- ⊙ 한국은행: 2022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12:00)
- ⊙ 통계청: 제3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14: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3월20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3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1년물	3월		3.65%
3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5년물	3월		4.30%
3월21일	23:00	미국	기존주택판매	2월	4.17M	4.00M
3월22일	23: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3월17일 주간		214.5
3월23일	08:00	일본	로이터 단칸 제조업지수	3월		-5
3월23일	21:00	미국	건설허가건수 수정치	2월		1.524M
3월23일	21:30	미국	경상수지	4분기		-217.1B
3월23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월13일 주간		192k
3월23일	21:30	미국	전미활동지수	2월		0.23
3월23일	23:00	미국	신축주택판매	2월	0.638M	0.670M
3월24일	00: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3월	-18.3	-19.0
3월24일	08:30	일본	CPI YY	2월		4.3%
3월24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3월		47.7
3월24일	18:00	유로존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3월	49.0	48.5
3월24일	21:30	미국	내구재주문	2월		-4.5%
3월24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3월		47.3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3월20일 (월)

- ⊙ 일본은행(BOJ) 3월9-10일 정책회의 주요 의견 요약 (오전 8시50분)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청문회 출석 (오후 11시)

3월21일(화)

- ⊙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시작 (22일까지)
- ⊙ 호주 중앙은행 3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 (오전 9시30분)
-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3월 비제조업 기업 전망 서베이 (오후 9시30분)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2023년 BIS 혁신서밋 사전녹화 패널토론 참여 (오후 9시30분)
- ⊙ 휴장국가: 일본

3월22일(수)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괴테대학교 통화금융안정연구소 주최 컨퍼런스 연설 (오후 5시45분)
- ⊙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 발표 (23일 오전 3시), 제롬 파월 의장 기자회견 (23일 오전 3시30분)

3월23일(목)

- ⊙ 스위스국립은행 금리 발표 및 기자회견 (오후 5시30분)
- ⊙ 영란은행 금리 발표 및 의사록 공개 (오후 9시)

3월24일(금)

- ⊙ 제임스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미국 경제 및 통화정책 관련 대담 (오후 10시30분)

▶ 금주 세계 5대 이슈

⊙ 인플레이션 금융안정이나: 연준의 선택은?

그동안 인플레이션 억제에 온 힘을 쏟아온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주 통화정책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이외에 은행권 위기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금리를 예상보다 더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은 50bp 인상 가능성에 대비 태세를 갖췄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인한 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로 분위기는 다시 바뀌어, 이제 25bp 인상이나 동결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2월 인플레이션 지표는 예상에 부합해 다소 안도감을 주었으나 연간 상승률이 6%로 여전히 목표치 2%를 훨씬 웃돌고 있다.

⊙ 크레디트스위스 사태, 급한 불은 끄다

SVB 파산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크레디트스위스의 유동성 우려로 전 세계적인 은행 위기 우려가 증폭되면서 금융시장이 동요했다.

스위스국립은행(SNB)이 신속히 시장 진정에 나섰다, 결국 UBS가 크레디트스위스를 30억스위스프랑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시장은 앞으로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지 경계하고 있다.

한편 SNB는 오는 23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을 위해 금리를 25bp나 50bp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영란은행, 금리 인상 마침표 찍을까

영란은행은 17개월에 걸친 금리 인상을 곧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트레이더들은 23일 회의에서 영란은행이 금리를 4.50%로 25bp 인상할 가능성을 60%, 동결할 가능성을 40%로 반영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두 자릿수지만, 천연가스 가격 하락 등 물가 상승 압력의 완화 조짐이 일부 포착됐다. 노동시장에서도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영란은행이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실시한 긴축이 충분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

⊙ 일본 CPI와 BOJ 정책 전망

미국과 유럽의 은행권 우려로 일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 가운데 일본은행(BOJ)이 장기 금리에 대한 제한을 언제 더 완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가 BOJ 정책 전망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근원 CPI 상승률은 40년 만의 최고치로, BOJ의 목표치 2%의 두 배를 넘고 있다. BOJ 관계자들이 오랫동안 미진한 부분으로 지목해온 임금 전망도 개선됐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곧 연봉 협상에서 사반세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임금 인상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전체 근로자 10명 중 7명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을 따라갈 수 있을지가 문제다.

⊙ 은행권 위기 재연 가능성

SVB가 무너지며 지역 은행들에 혼란을 초래하고, 안전자산 수요로 국채 수익률은 급락했다. 또 대형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의 주가가 폭락했다. 이 모든 것이 단 며칠 사이에 일어났다.

투자자들은 대대적인 금리 인상 속에 비슷한 사태가 더 벌어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런 일에는 대응도 중요하다. 퍼스트리퍼블릭은행에 대한 300억달러 유동성 지원이 우려를 완화했고, 연준과 SNB도 상황 진화에 도움을 줬다. 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당국의 추가 개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주간 국내 · 국제 금융시장 변동폭

- 외환: 원화 역내 +1.69%, 유로화 +0.22%, 엔화 +2.42%, 위안화 역내 +1.12%, 달러지수 -0.73%
- 국내 주가: 코스피 +0.05%, 코스닥 +1.11%
- 미국 주가: 다우존스 -0.15%, 나스닥 +4.41%, S&P500 +1.43%, 러셀2000 -2.64%
- 국내 국고채(레피니티브 호가): 3년 -28.3 bps, 10년 -17.6 bps, 최종 3/10년 스프레드 -0.9 bps
- 미국 국채: 2년 -74.2 bps, 10년 -29.8 bps, 최종 2/10년 스프레드 -44.9 bps
- 원자재: 원유 선물(WTI) -12.96%, 금 선물 +6.43%, 레피니티브/코어커머디티CRB지수 -3.81%